

大韓醫療氣功學會

대한의료기공학회지  
J.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Vol.18 No.1 2018.12.31.

대한의료기공학회지 연구 동향

백지유\* · 조민균\* · 정재훈\* · 이은미\* · 안훈모\* · 이재흥\*

\* : 대한의료기공학회

ABSTRACT

A Trends of Studies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Ji You Beag\*, Min Gun Cho\*, Jae Hun Jung\*, Eun Mi Lee\*, Hun Mo Ahn\*, Jae  
Heung Lee\*

\* : The Member of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overview and evaluate the trends of the studies in J. of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Methods** : All 186 articles' headlines and abstracts from vol.1(1996) to Vol.17(2017) were evaluated and classified. The dataset was searched from the Homepage of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 Received : 10 Nov. 2018 · Revised : 16 Nov. 2018 · Accepted : 25 Nov. 2018

Correspondence to : 이재흥(Jae Heung Lee)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287 대곶부부한의원

Tel. 031-997-7515 Fax. 031-997-7516 E-mail : Leejhkmd@nate.com

**Results :**

1. In the type of study, the literature studies consisted of 67%(126studies), clinical studies 21%(39), experimental studies 12%(22) in order.
2. *Gigong* classification was 60.96%(114studies) while Non-*Gigong* classification was 37.04%(73studies).
3. In *Gigong* classification, General *Gigong* took the largest part and there were no Taoist Sexual Practices studies.
4. In Non-*Gigong* classification, Obstetrics & Gynecology & Pediatrics took the largest part by 25 studies(12.37%). *An-Kyo-Hak* was the second largest by 24 studies(11.88%).
5. Analysis Research(112 studies, 59.89%) took the largest part in study method.

**Conclusions :**

1.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published average 8.9 studies per year(187 studies per 21 years).
2. Following the object of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114 studies(60.96%) of total 187 studies, published by J. of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were associated to *Gigong*.
3. In Non-*Gigong* classification, 25 studies about Obstetrics & Gynecology & Pediatrics, 24 studies about *An-Kyo-Hak*, 16 studies about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and Meridian & Acupoint Study were published by J. of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4. In *Gigong* classification, studies about Meditation and External *Gigong* Therapy were insufficient. There are even no studies about Taoist Sexual Practices. We need more studies about those categories to come.

\* **Keywords :** *Gigong*, J. of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Qigong, systematic review, 기공, 대한의료기공학회지, 체계적 분석

# I . 緒論

최근 학회지의 분석을 통해 회원뿐만 아니라 학회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학회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1] 향후 연구자들의 논제 설정의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대한의료기공학회지』(이하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대한의료기공학회의 현재 모습을 살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대한의료기공학회는 1994년 창립된 이래로, 1996년 학회지를 창간하여 정학회로의 꾸준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공법지도요법”이 비급여항목으로 인정되면서 기공요법의 제도권 진입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성과가 학회지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바, 연구 동향의 분석을 통해 학회지를 재평가할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대한의료기공학회지는 1996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17권 1호까지 총 186편의 논문을 수록하였는데, 대한의료기공학회지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 논문들의 논제 및 초록을 검색하였으며, 이 논문들의 성격을 평가, 분류하여 학회지 논문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의 연구동향 연구[2, 3], 『한국의사학회지』의 연구동향 연구[4], 『대한경락경혈학회지』의 연구동향 연구[5], 『한방척추관절학회지』의 연구동향[6] 등이 있어 이들의 연구 방법과 형식을 참고하여 대한의료기공학회지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려 한다.

## II . 研究 對象 및 方法

### 1. 연구 대상

대한의료기공학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1996년 1권 ~ 2017년 17권까지 통권 21, 187편 논문의 논제, 초록, 본문 내용을 조사하였다.

**Table 30. List of the Volume of the J. of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No.	Volume	Year	Study
-----	--------	------	-------

1	Vol.1 No.1, Serial Number 1	1996	7
2	Vol.2 No.1, Serial Number 2	1998	11
3	Vol.2 No.2, Serial Number 3	1998	10
4	Vol.3 No.1, Serial Number 4	1999	10
5	Vol.3 No.2, Serial Number 5	1999	10
6	Vol.4 No.1, Serial Number 6	2000	14
7	Vol.4 No.2, Serial Number 7	2000	15
8	Vol.5 No.1, Serial Number 8	2001	18
9	Vol.6 No.1, Serial Number 9	2002	8
10	Vol.7 No.1, Serial Number 10	2003	7
11	Vol.7 No.2, Serial Number 11	2004	7
12	Vol.8 No.1, Serial Number 12	2005	5
13	Vol.9 No.1, Serial Number 13	2006	8
14	Vol.10 No.1, Serial Number 14	2007	8
15	Vol.11 No.1, Serial Number 15	2009	12
16	Vol.12 No.1, Serial Number 16	2011	7
17	Vol.13 No.1, Serial Number 17	2013	7
18	Vol.14 No.1, Serial Number 18	2014	5
19	Vol.15 No.1, Serial Number 19	2015	7
20	Vol.16 No.1, Serial Number 20	2016	5
21	Vol.17 No.1, Serial Number 21	2017	6
Total			187 (8.9/Year)

## 2. 연구 방법

### 1) 연구 성격 분류

논제 및 초록을 바탕으로 논문의 성격을 문헌, 실험, 임상으로 분류하였다.

### 2) 연구 분야 분류

논제 및 초록, 본문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기공분야와 기공 외 분야로 분류하였다.

기공 분야는 Lee[7]가 분류한 방법을 채용하여 기공일반, 기과학, 기철학, 내단, 도인, 명상, 방중, 양생, 외기발공의 9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기공 외 분야는 한의과대학 교과목과 한의 진료 과목을 참고하여 후향적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과목으로 분류가 어려운 논문은 연구자가 임의로 연구 분야명을 정하여 분류하였다. Ex) 교통사고, 안교학 등.

또한 연구 분야별 논문수가 1 ~ 2개로 소수인 논문은 모두 기타로 분류하였다.

### 3) 연구 방법 분류

연구 방법별 분류는 Lee[8]가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기술연구, 분석연구, 실험연구, 질적연구로 분류하였다.

### 4) 연구 도구 분류

설문지, 진단장비, 시술도구 등 연구에 사용된 도구를 조사하였다.

### 5) 연구자 분류

각 논문의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추출하여 참여한 논문편수가 많은 순으로 주저자별, 공동저자별, 그리고 둘을 합친 경우로 구분하여 나열하였다.

## 3. 용어의 규정

### 1) 안교학(按蹻學)에 대해서

연구 방법 중 연구 분야별 분류에서 연구자 임의로 수기요법으로 분류되는 연구를 ‘안교학(按蹻學)’이라 명하였다. 이는 기공학 관련 연구자로서 황제 내경에서부터 사용되어 왔던 기공의 원류인 ‘導引按蹻’의 명칭을 계승한다는 의의에서 ‘안교’를 사용하였고, 또한 이 연구에서는 안교학(수기요법)을 비록 기공의 분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그 원류를 살펴보았을 때 도인과 안교 모두 기공의 분야로 볼 수 있기에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학문적 논의를 통해 수기요법이 기공학의 한 분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을 표명하고자 안교학이라 명하였다. 더불어 옛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그 명칭의 의미가 본래 뜻하는 바를 그대로 전할 수 있고, 변형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어 지금까지의 수기요법으로 분류되는 모든 학문을 안교학이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 2) 氣의 영문표기 ‘Qi’와 ‘Gi’에 대해서

이 연구에서는 ‘氣’에 대한 영문표기를 일반적 통용 표기인 ‘Qi’로 표기하지 않고 ‘Gi’로 표기하였다. 이는 기공의 원류와 정통성이 백두산민족(한민족)에게 있으며, 한국 기공이 중국기공과 다른 독자성과 우수성이 있다는 대한의료기공학회의 학풍에 의거 한국식 발음인 ‘Gi’로 표기하였다. 이에

따라 기공 역시 Gigong 또는 Gi-Gong으로 표기하였다.

### III. 結果

#### 1. 연구 성격 분류 결과

크게 문헌, 실험, 임상논문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187편의 연구 중 문헌논문은 126편, 임상논문 39편, 실험논문 22편 순으로 구성되었다. 문헌논문은 2000년(26편), 1999년(18편), 1998년(17편) 등의 순서로 많았고, 임상논문은 2015년(6편)에 가장 많고 이외엔 2014년, 2016년, 2017년에 4편으로 많았다. 실험논문은 2001년과 2003년에 5편으로 가장 많았고, 2006년 3편으로 그 다음으로 많이 연구되었다(Table 2,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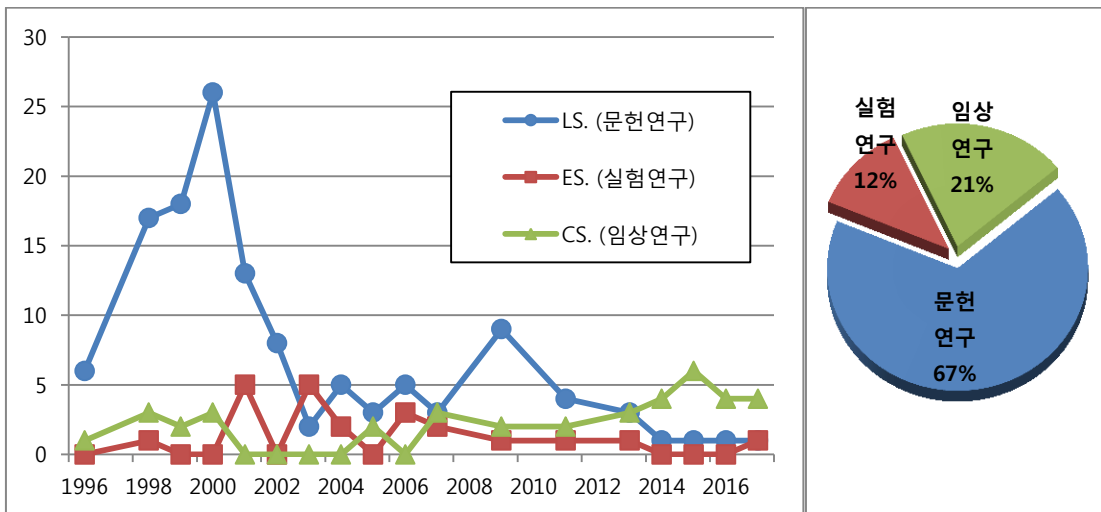
**Table 2. The Number of Studies for Type of Study per Year.**

Year	1996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Total
LS.	6	17	18	26	13	8	2	5	3	5	3	9	4	3	1	1	1	1	126
ES.	0	1	0	0	5	0	5	2	0	3	2	1	1	1	0	0	0	1	22
CS.	1	3	2	3	0	0	0	0	2	0	3	2	2	3	4	6	4	4	39
Total	7	21	20	29	18	8	7	7	5	8	8	12	7	7	5	7	5	6	187

LS. : Literary Study (문헌 연구)

ES. : Experimental Study (실험 연구)

CS. : Clinical Study (임상 연구)



**Fig. 4. The number of studies for type of study per year**

## 2. 연구 분야 분류 결과

학회지에 게재된 총 187편의 논문을 기공분야와 기공 외 분야로 분류한 결과 기공분야는 총 114편(60.96%), 기공 외 분야는 총 73편(39.04%;기공 분야에도 포함된 중복 제거 시)으로 나타났다.

### 1) 기공 연구 분야 분석 결과

**Table 3. The number of studies for classification of *Gigong* per year.**

Year	1996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Total
GG.	3	10	4	5	4	1	1	1	0	0	0	1	1	0	0	1	1	1	34
SG.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PhG.	0	1	1	1	0	0	0	0	0	1	1	0	1	0	0	1	1	0	8
ND.	3	0	1	2	0	1	0	1	0	0	0	2	0	0	0	0	0	0	10
DI.	1	3	2	4	0	0	2	3	1	1	2	2	1	0	2	0	0	1	25
Mdt.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TSP.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N.	0	3	1	10	3	3	0	0	2	0	3	0	0	1	0	1	0	1	28
EGT.	1	2	1	1	4	0	4	0	0	2	0	0	0	0	0	0	1	0	16
Total	8	21	10	22	13	5	7	5	3	4	6	5	4	1	2	3	3	3	124

GG. : General Gigong(기공일반)

PhG. : Philosophy of Gi(기철학)

DI. : Do-In(도인)

TSP. : Taoist Sexual Practices(방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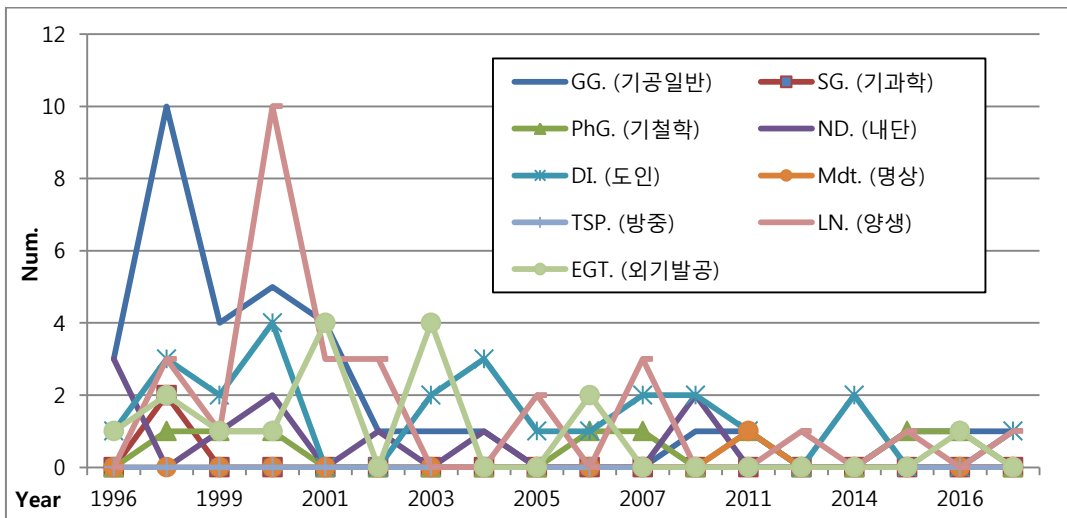
EGT. : External Gigong Therapy(외기발공)

SG. : Science of Gi(기과학)

ND. : Nae-Dan(내단)

Mdt. : Meditation(명상)

LN. : Life Nurturing(양생)



**Fig. 5. The number of studies for classification of *Gigong* per year.**

기공 연구 분야(여러 기공 분야에 포함된 경우 중복 반영)에서 기공일반에 관한 것은 27.41%(34편), 양생은 22.58%(28편), 도인은 20.16%(25편), 외기발공은 12.90%(16편)이었고, 내단은 8.06%(10편), 기철학과 기과학은 각각 6.45%(8편)와 1.61%(2편), 명상이 0.80%(1편)이었다. 그러나 방중에 관한 것은 연구된 바 없었다(Table 3, Fig. 2, 4).

## 2) 기공 외 연구 분야 분석 결과

**Table 4. The Number of Studies for Classification of Non-*Gigong* per Year.**

Year	1996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Total
T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
Gi.	7	17	9	21	11	5	7	5	3	4	6	5	4	1	2	2	3	2	114
Etc.	0	0	0	0	0	0	0	0	0	1	0	1	1	2	1	0	0	0	6
Hb.	0	0	0	0	0	0	0	1	0	1	0	0	0	1	0	0	1	0	4
OGP.	0	0	11	5	0	0	0	1	0	2	0	2	0	1	1	1	0	1	25
AKH.	0	3	0	1	1	0	0	0	1	1	1	4	2	2	1	4	1	2	24
Dig.	0	0	0	1	1	2	0	1	0	0	0	0	0	0	0	0	0	0	5
AMM.	0	4	1	1	6	0	0	1	1	0	1	1	0	0	0	0	0	0	16
Der.	0	0	0	1	1	1	0	0	0	0	0	1	0	0	0	1	1	0	6
Total	7	24	21	30	20	8	7	9	5	9	8	14	7	7	5	8	6	7	202

TA. : Traffic Accident (교통사고)

Etc. : etc. Study (기타)

OGP. : Obstetrics & Gynecology & Pediatrics (부인소아학)

Dig. : Diagnostics (진단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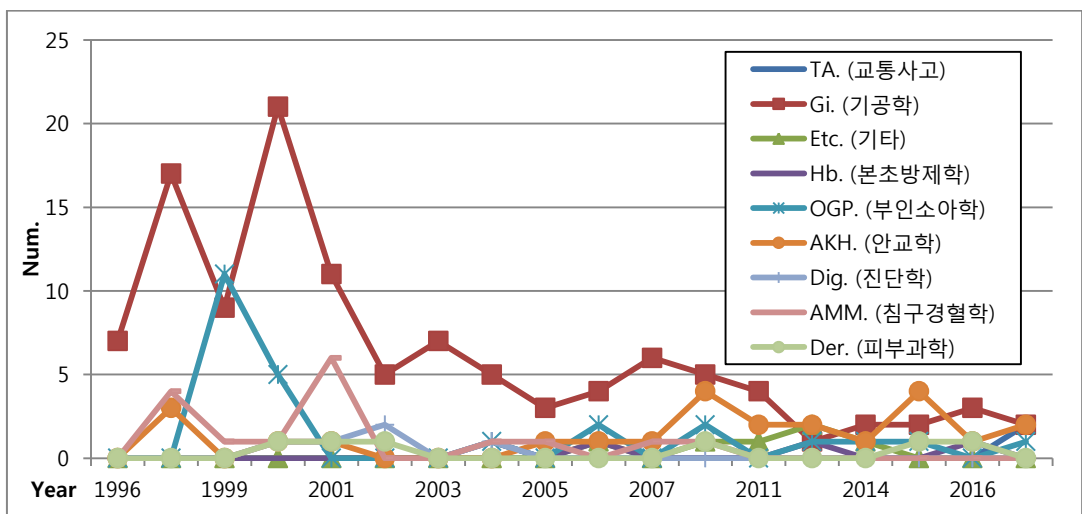
Der. : Dermatology (피부과학)

Gi. : *Gigong* Study (기공학)

Hb. : Herbology & Herbal Formula Study (본초방제학)

AKH. : *An-Kyo-Hak* (안교학)

AMM. :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and Meridian & Acupoint Study (침구경혈학)



**Fig. 6. The number of studies for classification of Non-*Gigong* per year.**



기공 외 연구 분야에서는 부인소아학 25편(12.37%), 안교학이 24편(11.88%), 침구경혈학 16편(7.92%) 등의 순으로 많이 연구되었다(Table 4, Fig.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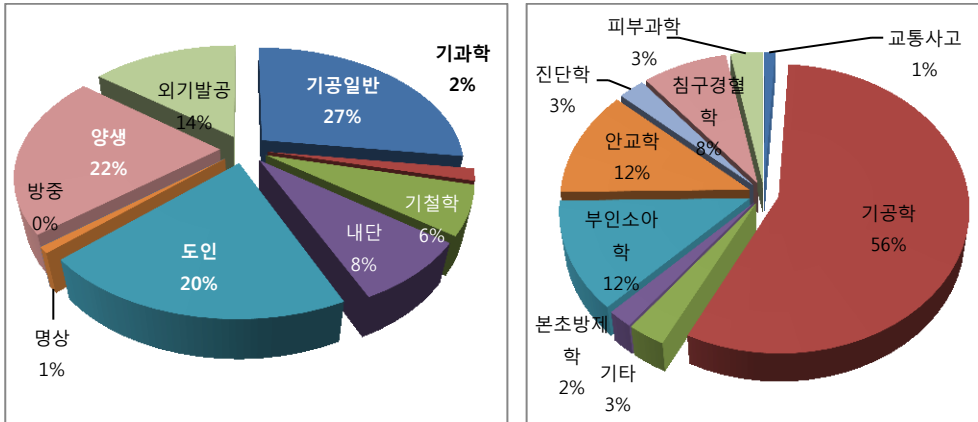


Fig. 4. Distribution According Classification of Study

### 3. 연구 방법 분석 결과

#### 1) 전체 연구방법 분석 결과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 분석연구(59.89%,112편), 기술연구(15.50%,29편), 질적연구(14.43%,27편), 실험연구(10.16%,19편)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연구는 2000년(24편)에, 기술연구는 1998년(5편)에, 질적연구는 2014년(5편)에 가장 많았다(Table 5, Fig. 5).

Table 5. The Number of Studies for Method of Study per Year.

Year	1996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Total
D.R.	0	5	3	4	2	2	1	0	2	0	3	1	1	1	0	3	0	1	29
A.R.	6	14	17	24	11	6	1	4	2	5	3	9	4	3	0	1	1	1	112
E.R.	1	1	0	0	4	0	5	2	0	3	1	1	1	0	0	0	0	0	19
Q.R.	0	1	0	1	1	0	0	1	1	0	1	1	1	3	5	3	4	4	27
Total	7	21	20	29	18	8	7	7	5	8	8	12	7	7	5	7	5	6	187

D.R. : Descriptive Research (기술연구)

A.R. : Analysis Research (분석연구)

E.R. : Experimental Research (실험연구)

Q.R. :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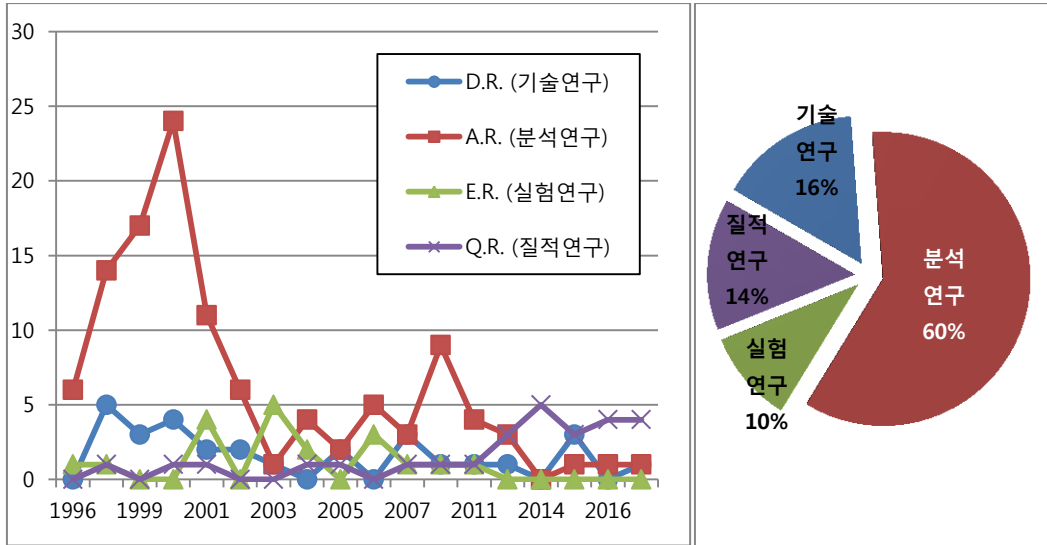


Fig. 5. The Number of Studies for Method of Study per Year

## 2) 기공분야별 연구 방법 분석 결과

기공분야별 연구 방법을 분석해 본 결과, 기공일반 분야에서는 분석연구가 21편(61.76%)으로 가장 많았고, 기과학 분야는 모두 기술연구였으며(2편), 기철학분야는 분석연구(7편;87.5%)가, 내단 분야 역시 분석연구(9편(90.00%)가 가장 많았다. 명상은 모두 분석연구로(1편) 진행되었고, 도인 분야는 분석연구(18편;72.00%), 양생 분야 또한 분석연구(17편 60.71%)가 많았다. 반면 외기발공 분야는 실험연구(10편;62.50%)가 가장 많았다(Talbe6, Fig.6).

Table 6.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Method of Study per Year

	D.R. (기술연구)	A.R. (분석연구)	E.R. (실험연구)	Q.R. (질적연구)	Total
GG. (기공일반)	10	21	1	2	34
SG. (기과학)	2	0	0	0	2
PhG. (기철학)	0	7	0	1	8
ND. (내단)	0	9	0	1	10
DI. (도인)	0	18	3	4	25
Mdt. (명상)	0	1	0	0	1
TSP. (방중)	0	0	0	0	0
LN. (양생)	11	17	0	0	28
EGT. (외기발공)	3	2	10	1	16
Total	26	75	14	9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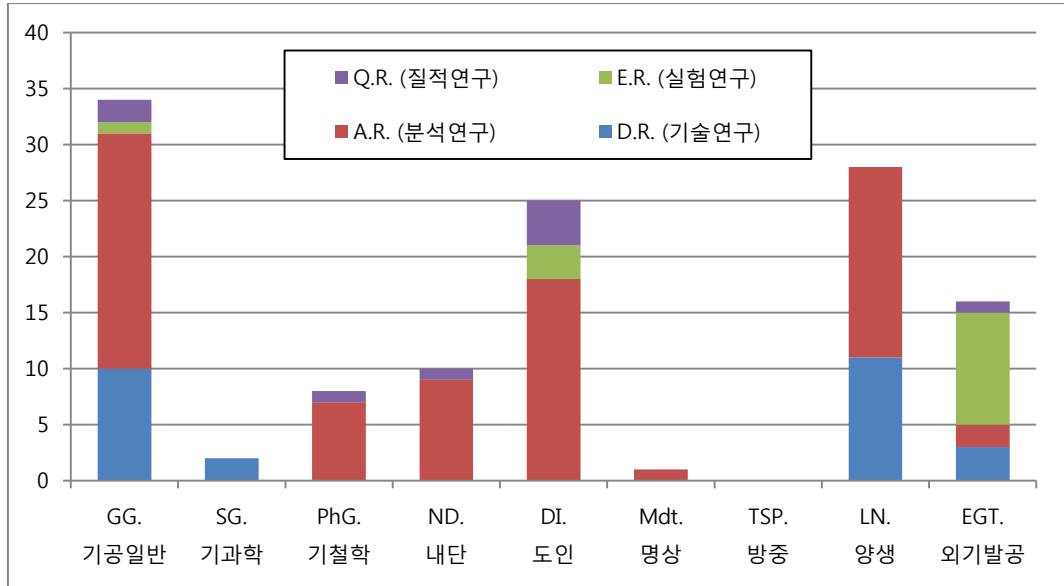


Fig. 6.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method of study per year.

#### 4. 연구 도구 분석 결과

사용된 연구도구는 크게 설문지, 진단장비, 시술도구, 기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전체 187편의 논문 중 설문지 등은 총 16편(8.55%)에서 사용되었고, 진단장비가 사용된 논문은 총 31편(16.57%), 시술도구가 사용된 논문은 총 16편(8.55%)이었다.

사용된 진단 장비는 컴퓨터 적외선 전신 촬영기(DITI)(13편), 양도락(1편), 메리디안(심장CMP측정:1편), 內經經絡診斷機(IEMD;2편), SA-3000P(자율신경평가장비;2편), ABR2000(스트레스진단기;2편), 동통평가표(1편), 가속도맥파측정기(TAS9;1편), 혈압측정기, 혈액검사기, LFT검사, x-ray, DSM-4, 소변검사 등이다.

시술도구는 누운 전신 파동치료기, 누운 좌우진동나선치료기, turbosonic WBV(2편), 웨이커, 거꾸리(Inversion Table, Gravity Inversion Table), 골반교정기, 두타매트, 실버밍크 등의 물리치료 의료기기와 수지침(3편), stainless steel, 耳針, 治療用 磁石(2편), 유리제-火罐式附缸, 플라스틱제-排氣罐式附缸, 좌훈기 등의 직접치료 도구 등이 사용되었다.

기타 실험연구들에 사용된 장비들로 11,13,15파운드 개량 각궁, 종이상자, 약재 등이 있었다.

기술연구에서는 주로 설문지, 간혹 강의평가지, 의무기록지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분석연구는 문헌을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아 별다른 연구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실험연구와 질적연구에서는 여러 진단을 위한 도구나 시술을 위한 도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 5. 저자 분석 결과

주저자는 이재홍(6편), 안훈모, 정재훈(4편), 장명준, 김태우, 강한주, 김지희, 김대식(3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Table 7), 공동저자로는 이기남(31편), 윤종화(26편), 안훈모(21편), 이재홍(14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Table 7),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에 참여한 저자는 이기남(31편), 윤종화(26편), 이재홍(21편) 등의 순이다(Table 8).

**Table 7. The List of the Author & Co-Author.**

Author	Num.	Co-Author	Num.
<b>이재홍</b>	<b>6</b>	<b>이기남</b>	<b>31</b>
안훈모 정재훈	4	윤종화	26
강한주 김대식 김지희 김태우 윤지은	3	안훈모	21
김경환 김문희 김정환 김준한 나삼식 박정은 반창열 배재룡 서유희 윤나다 이현경 장명준 장윤정 조민균 최은경	2	이재홍	14
강상만 강연숙 강희훈 고지현 곽재영 권중철 권휘근 권홍주 김경옥 김광현 김기욱 김미나 김민석 김보균 김성진 김소연 김수경 김여옥 김영미 김우호 김인창 김재두 김정인 김정훈 김주미 김주희 김준철 김지예 김태은 김태현 김현수 김형찬 김훈수 남세림 노주희 목나래 문수영 박령준 박민재 박병준 박서희 박선민 박연주 박종웅 박종익 박준상 박지현 방정환 배항 백지유 백태호 서명효 손정희 송정민 송택진 신민규 신성원 신창현 신현호 심상훈 안중혁 안현국 여영만 오수일 오충선 우성포 위영택 유경훈 유광열 유호달 윤성민 윤종화 이강호 이계승 이기성 이기승 이동현 이동휘 이병주 이병희 이상엽 이상훈 이세원 이승기 이승훈 이영섭 이은미 이정원 이재영 이현이 임상혁 임한제 장성진 장재훈 장종성 장진영 전진우 정기진 정대성 정순덕 정순웅 정우석 정은영 정은지 정재원 조철성 주대환 천수영 최규현 최문석 최병준 최지영 최희석 필감매 하정아 한원주 한진수 허금범 허은호 허재석 허지인 허진 홍광석 홍승철 홍찬규 황문제 황은희 황정일	1	김경환 박재수	11
		배재룡 이은미 필감매	10
		강한주 나삼식 박령준	9
		지정옥	8
		김준철 장상철 정명수 조홍윤 최형일	7
		김길수 류영수 박은정 안병상	6
		김경요 장명준 최은정	5
		구병수 길호식 김성삼 김준한 박종웅 이현경 이호승	4
		김경호 김광호 박승정 서중훈 이기승 이상룡 이찬구 정대성 정순덕	3
		권소희 권철현 김기범 김기욱 김보균 김애정 김창민 노주희 박상연 박정은 배건태 서명효 선재광 손희천 송성애 유창순 유호달 이계승 이명중 이철진 장종성 정우석 조민균 지선영 한원주 홍승철 황민섭	2
		강효신 고지현 권휘근 권홍주 김경철 김나영 김난영 김대준 김대형 김수진 김여옥 김연섭 김영미 김완겸 김은걸 김재균 김정순 김경옥 김정환 김종화 김준기 김지희 김태우 류상채 맹웅재 박미연 박상환 박서희 박성식 박용기 박종익 박준상 박지현 박찬국 박현국 백승희 변준석 서유희 손인철 신조영 신종훈 안중혁 양희숙 유광렬 유동희 유성기 유심근 이민규 이시형 이원희 이윤희 이인선 이형범 전호성 정재훈 정채빈 정현영 조현석 최규현 최달영 최병문 최우준 최은경 최지영 하정아 허재석 허지인 허진 홍원식 황종욱	1
Total	187	Total	432

**Table 8. The Top List of the Total Number of Studies by Author & Co-Author.**

No.	Name	A	Co-A	Total	No.	Name	A	Co-A	Total	No.	Name	A	Co-A	Total
1	이기남	0	31	31	21	김준한	2	4	6	41	김경호	0	3	3
2	윤종화	1	26	27	22	류영수	0	6	6	42	김광호	0	3	3
3	안훈모	4	21	25	23	박은정	0	6	6	43	김기욱	1	2	3
4	이재흥	6	14	20	24	안병상	0	6	6	44	김보균	1	2	3
5	김경환	2	11	13	25	이현경	2	4	6	45	김정환	2	1	3
6	강한주	3	9	12	26	김경요	0	5	5	46	노주희	1	2	3
7	배재룡	2	10	12	27	박종웅	1	4	5	47	박승정	0	3	3
8	나삼식	2	9	11	28	정재훈	4	1	5	48	서명효	1	2	3
9	박재수	0	11	11	29	최은정	0	5	5	49	서윤희	2	1	3
10	이은미	1	10	11	30	구병수	0	4	4	50	서중훈	0	3	3
11	필감매	1	10	11	31	길호식	0	4	4	51	유호달	1	2	3
12	박령준	1	9	10	32	김성삼	0	4	4	52	윤지은	3	0	3
13	김준철	1	7	8	33	김지희	3	1	4	53	이계승	1	2	3
14	지정옥	0	8	8	34	김태우	3	1	4	54	이상룡	0	3	3
15	장명준	2	5	7	35	박정은	2	2	4	55	이찬구	0	3	3
16	장상철	0	7	7	36	이기승	1	3	4	56	정우석	1	2	3
17	정명수	0	7	7	37	이호승	0	4	4	57	최은경	2	1	3
18	조홍윤	0	7	7	38	정대성	1	3	4	58	한원주	1	2	3
19	최형일	0	7	7	39	정순덕	1	3	4	59	홍승철	1	2	3
20	김길수	0	6	6	40	조민균	2	2	4	60	...			

## IV. 考察

### 1. 대한의료기공학회의 역사

대한의료기공학회는 1994년 7월 창립총회 및 학술집담회를 개최하면서 "대한기공의학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다. 초대회장은 김기욱이 역임하였다.

대한의료기공학회가 창립된 1990년대는 “氣” 열풍이 불던 시대로, Lee[7]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공이라는 명칭이 1970年代에 중국에서 유입된 이래 1980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氣功, 단전 호흡 등이 대중적 관심을 끌고 주목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984년에 실존 인물 우학도인 권태훈<sup>주3</sup>을 주인공으로 한 김정빈의 소설 『丹』 [9]과, 1986년 발간된 洪泰洙의 『丹의 實象』 [10] 등으로 기공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고, 기공의 붐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어 1992년 한중수교의 체결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郭林의 新氣功療法, 林厚省의 太極氣功

주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0332&cid=46653&categoryId=46653>

十八式, 嚴新의 開智功, 元極功, 法輪功 등의 기공 수련법들이 더욱 더 활발히 유입되었고, 이러한 영향 아래 한국에 자생적 기공 수련 단체인 國仙道, 丹學仙院(단월드), 研精院, 天道仙法, 甌山道, 金仙學會, 石門呼吸 등등도 대중들에게 두각을 나타냈으며, 오쇼 라즈니쉬(1931-1990)<sup>주4</sup>, 크리슈 나무르티(1895-1986)<sup>주5</sup> 등과 같은 명상가들과 관련된 각종 명상 센터들도 앞 다투어 개설되어 가히 1990년대는 “氣” 열풍의 시대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 열풍의 흐름은 단순한 호기심, 신비적 체험에 대한 동경, 건강에 대한 열망, 신앙적 열정에서 그치지 않고 학문적인, 과학적인 관점에서도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는데, 1990년 이동현이 『건강기공』 [11]을 발간하여 한국에서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공 연구의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요구에 따라 1990년대초에 한의사들 중심으로 사회단체 우리양생법협회(한의사와 일반인)와 사회단체 한국내가공법학회(한의대 학생 중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한의계에서도 본격적인 심신수련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선조 한의사분들의 기공관련 업적이나 앞으로의 학문적인 방향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한의사협회 내에 기공 관련 학회 창립이 절실하였으며, 결국 대한의료기공학회(창립 당시는 ‘대한기공의학회’)가 1994년 7월에 창립되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정신과학학회가 1994년 4월 대덕연구단지에서 과학자 모임을 발족한 이후 1994년 08월에 과기처(현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되었고, 10월에 창립총회 및 제1회 추계 학술대회를 통해 창립되었다<sup>주6</sup>. 한국정신과학학회가 과학자, 철학자 중심의 연구자들이 모여 氣哲學, 생체 氣科學, 시공간 기과학, 氣産業, 잠재능력 등 氣의 科學的 解明과 활용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大韓醫療氣功學會는 한의사가 중심이 되어 한의학과 기공에 대한 관계, 氣功治療의 學問的 接近과 활용 등에 많은 관심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2].

비슷한 시기에 창립한 이 두 단체의 학문적 열정과 “기” 열풍의 시대적 열망에 힘입어 1990年代末葉에는 명지대 사회체육 대학원과 원광대 동양학대학원에서 氣功學 전공이 開設되어, 氣功學을 獨立된 學問으로 進入시키는 重要한 역할을 하였고[12], 이어서 2000년대 초반에 대구한의대학교(구 경산대학교)에도 기공학 전공이 개설됨으로써, 대한의료기공학회와 함께 기공학과 한의학의 상호 연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7].

---

주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67993&cid=44546&categoryId=44546>

주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7515&cid=44546&categoryId=44546>

주6. [http://ksbmss.or.kr/bbs/content.php?co\\_id=history](http://ksbmss.or.kr/bbs/content.php?co_id=history) : 한국정신과학학회 학회연혁 참조

대한의료기공학회는 1994년 창립 이후 1995년 7월에는 기공요법 워크숍을, 1996년 12월 "대한기공의학회지" 창간하게 되면서 기공의 의학적 활용에 대한 본격적인 기반을 다지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한의학회 소속 준학회에서 정학회로 승격하게 되었다. 1999년에는 "대한기공의학회"에서 "대한의료기공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한의료기공학회의 꾸준한 활동은 2000년 심평원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기공요법 상정과 2001년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에 "기공요법" 추가 등으로 이어졌으며, 2003년 제2대 회장 박재수가 임명되면서 한의사협회와 꾸준한 협력을 통해 기공요법을 신의료기술 결정 위원회 상정, 드디어 마침내 2005년에 한방물리요법 중 운동요법의 하나로 "공법지도요법"이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03호, 2004.12.31)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5-14호, 2005.2.22.)에 의거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13]되면서 기공요법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되는 혁혁한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기공요법이 제도권의 인정과 보호를 받게 되어 기공학 연구의 가치와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한의료기공학회는 이를 발전 보급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 활동에 매진하게 되었고, 2015년 3대 안훈모 회장의 체제로 전환된 이래 2018년 현재까지 기공요법을 활용한 많은 임상 성과를 생산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연계한 기공요법 교실 강좌 등의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성과들은 『대한의료기공학회지』에 모아지게 되었고, 학회는 1996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제17권 1호까지 통권 제22권, 총 187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 2. 『대한의료기공학회지』의 연구 동향

먼저 『대한의료기공학회지』에서 어떠한 성격의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크게 문헌, 실험, 임상논문으로 구분해서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문헌 논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시기별 백분율로 분석해보았을 때(Fig. 7), 초기에는 문헌연구의 비중이 80-90%이상으로 대부분이었지만 점차로 그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임상 연구는 초기에는 미미하였지만 최근에는 50%이상으로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회지의 연구 성향이 초기에는 기공학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기라 이론 정립과 규명에 치중하였기에 문헌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본래 학회지의 취지에 맞게 의료기공의 활용과 적용에 더 많은 중점을 두어 임상 연구 위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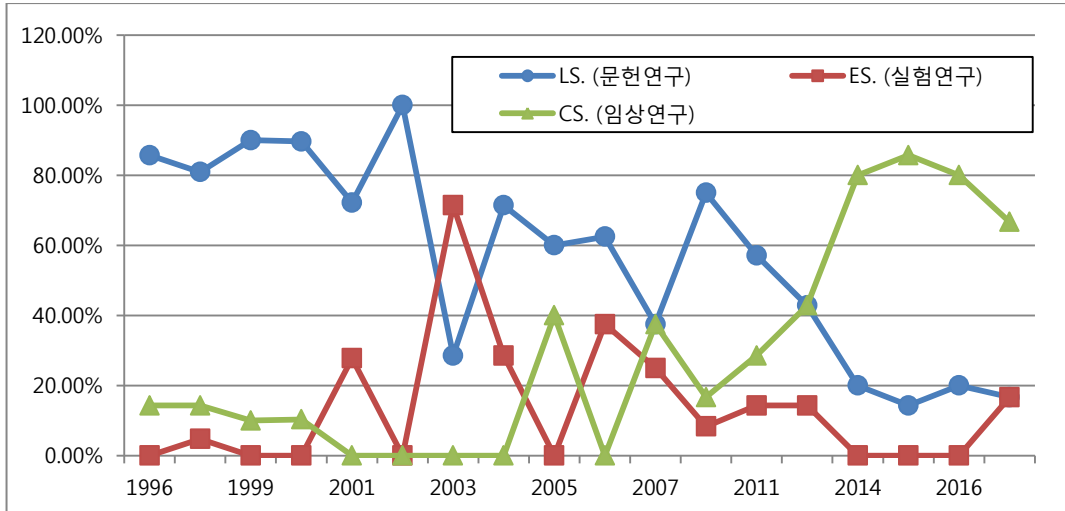


Fig. 7. The Percentage of Studies by Type of Study per Year

다음으로 어떠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구 분야를 크게 기공연구 분야와 기공 외 연구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기공분야가 전체의 60.96%(114편)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 백분율로 살펴보았을 때(Fig. 8), 초기에는 기공연구의 비중이 높았지만 2000년 후반에서부터 기공의 비중이 줄어들고 비 기공분야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기공과 비기공의 비중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기공분야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기공일반(27.2%,34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를 시기적으로 분석해 보면 초기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고, 그럼에도 최근까지 1년 내외로 꾸준히 연구가 발표되고 있었다. 또한 명상, 기과학 분야는 전체 1-2편 내외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최근 몇 년간은 기과학, 명상, 내단은 연구되지 않고 있고, 외기발공 분야도 2016년 임상 치험례 1건 외에는 별다른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방중에 관한 것은 전혀 연구된 바 없었다.

기공 외 연구 분야의 동향에서 특히 부인소아학(12.37%, 25편)과 안교학(11.88%, 24편)이 다수로 연구되고 있었다. 이 중 부인소아학의 연구가 많은 것은 양생의 관점에서 기공학 연구자들은 건강한 출생과 장수, 그리고 행복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며, 안교학의 경우에는 황제 내경에서부터 사용되어 왔던 ‘도인안교’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도인과 안교는 음양관계로서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에 모두 기공학의 한 분야로 이해하고 있는 대한의료기공학회의 학풍에 기인하여 해당분야의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사료된다(Fig.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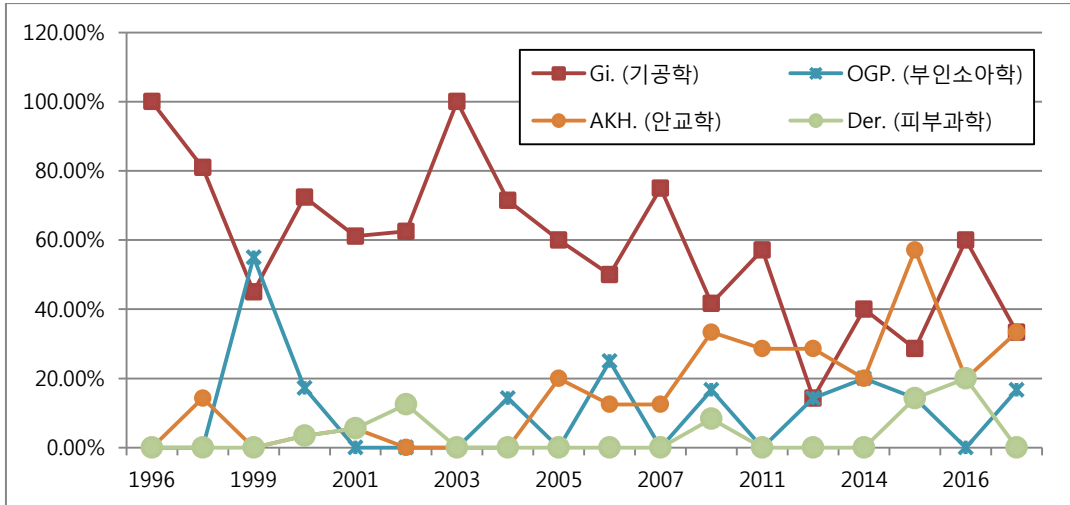


Fig. 8. The percentage of studies by classification of study category per year

다음으로 연구 방법 별로 분석해보면, 분석연구 방법이 가장 많은 비율(59.89%)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 백분율로 살펴보면(Fig. 9), 초기에는 분석연구 방법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질적연구의 비중이 높아져감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학회지의 연구 성향이 초기에는 이론중심이었다면, 후기에는 임상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어가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추론된다. 분석연구는 기공의 모든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기술연구는 양생, 기공일반, 외기발공, 기과학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외기발공 분야에서는 실험연구(13편 중 8편)가 압도적으로 많이 진행되었다. 이는 기공 분야별 선호되는 연구 방법이 있음을 향후 연구자들이 참고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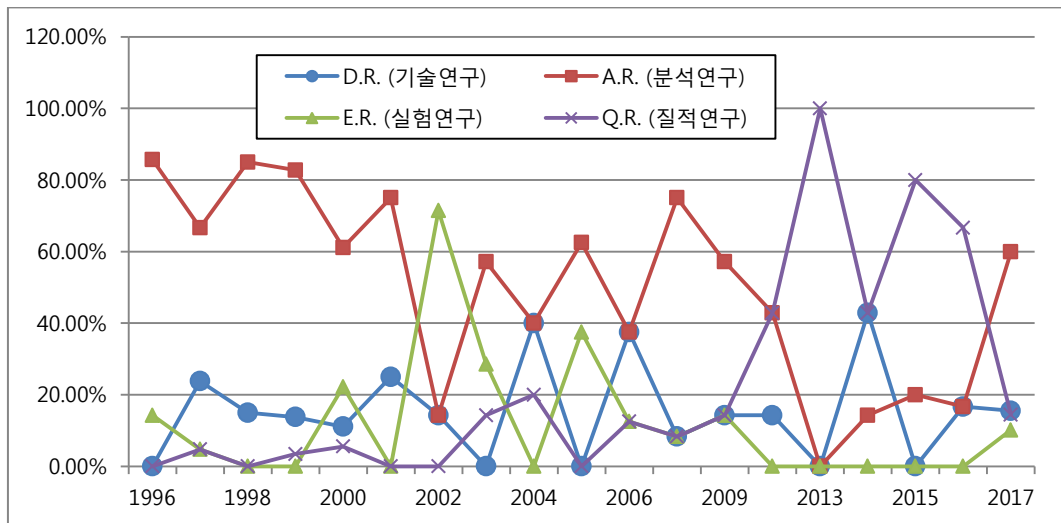


Fig. 9. The Percentage of Studies by the Method of Study per Year

끝으로, 사용된 연구도구를 살펴보면, 기공학의 특성상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는 방식인 설문지 등의 방식이 다용되었고, 가장 많이 사용된 진단도구는 DITI였으며, 기타 스트레스 진단기, 자율신경평가장비, 內經經絡診斷機 등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아직까지 마땅히 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미비한 실상을 반영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면서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를 측정하고 치료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어 기공학 연구가 좀 더 객관화할 수 있게 되기 희망해 본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향후 대한의료기공학회지의 연구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세계화 시대에 한의학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음양오행을 기초로 한 한의학에서 기공은 뗄 수 없는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한의학에 기대하는 바가 전인치료와 심신치료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명상, 내단, 외기발공 등의 심신연계성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기공 외 분야에서는 부인소아, 침구경혈에 더불어 안교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실행되었는데, 차후 이 안교학과 기공과의 관련성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최근 교통사고에 대한 한방치료의 만족도 및 치료 내원율이 높은 편으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한의학 치료의 방향과 방법, 논리에 대해 기공학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아직은 한의학의 기와 기치료에 대한 측정도구가 마땅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 조금씩 기공학 연구에 객관적이고 세밀한 측정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니, 최신 진단장비나 의료기기, 과학기술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V. 結論

1. 대한의료기공학회는 매년 평균 8.9편(187편/21Year)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었다.
2. 『대한의료기공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총187편 중 기공관련 논문은 114편(60.96%)

로 학회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기공 관련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 기공관련 외에 부인소아학 25편(13.37%), 안교학 24편(12.83%), 침구경혈학 16편(8.56%) 등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4. 기공분야 중에 명상, 내단 분야와 외기발공 분야의 연구가 부족하고, 방중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어 향후 해당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

## VI. 참고문헌

- 1) Kang DH, Kang JH, Lim MA, Lee HJ, Kim DR, Youn IY. *A Trends of Studies in Journal of the Spine&joint Korean Medicine* Journal of the Spine & joint Korean Medicine. 2016;13(1):15-23.
- 2) Bang J. *A study about the trend of Wonjon memoir thesis in the recent 3 years.*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4;17(4):137-44.
- 3) Keum K, Song J, Eom D. *Trends of Studies on Medical Classic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1;24(2):101-7.
- 4) Song J, Eom D. *Trends of Studies on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4;27(2):1-9.
- 5) Song J, Hwang S, Ahn S, Eom D. *Trends of Studies in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16;33(1):1-11.
- 6) Kang D, Kang J, Lim M, Lee H, Kim D, Youn I. *A Trends of Studies in Journal of the Spine&joint Korean Medicine.* Journal of the Spine&joint Korean Medicine. 2016;13(1):15-23.
- 7) Lee JH, Kim JH, Jung JH, Jo MG, Lee EM. *Research Trends on Qigong-related Studies in Korea since 2008.* J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2016;16(1):1-58.
- 8) Lee JK. *Analysis of Research Trends for the Scientification of Qigong Exercise.* Yongin: Graduate School of Industry, Myongji University; 2016:47.
- 9) 김정빈. 丹. 서울: 정신세계사; 1984.
- 10) 洪泰洙. 丹의 實象. 서울: 東亞文學社; 1986.

- 11) 李東鉉. 健康氣功. 서울: 精神世界社; 1990.
- 12) Choi EK, Park SJ, Lee KN. 韓國 氣功 團體의 現況. J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2002;6(-):1-49.
- 13) Lee JH, Ahn HM, Hong SC, Lee EM. *The Clinical study of Su-Gi therapy's Effects on Bell's palsy by observing of Y-system.* J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2015;15(1):109-36.